

유건호

본회 연구위원,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이 글은 1996년 1월 제12회 기독교문화학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환경 문제에 관련한 자연관의 유형들

* 이 글은 필자의 독창적인 논문이 아니라, 주로 기독교학문연구회의 환경연구모임이 같이 공부한 L. Wilkinson (ed.), "Earth Keeping in the '90s: Stewardship of Creation" 의 Chapters 5-9, 14-16 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한 것입니다. 재구성의 과정에서 필자의 지식이 부족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글머리

식량, 에너지, 광물자원의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라는 환경 문제는 이제 인류의 공동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환경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에, 개인이나 집단은 그의 세계관에 상관없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이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적극성의 정도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택하는 해결의 방식은 역시 그의 세계관에 의존하리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역사 속에서의와 현시대에 존재하는 자연관을 유형별로 정리해보고, 각각의 자연관들에 의해 사람이 환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

40 환경문제에 관련한 자연관의 유형들

지를 살펴보려는 거친 시도이다. 자연관을 분류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에는 질서/목적이 존재하는가? 2) 그 질서/목적의 근원은 무엇인가? 3) 자연의 안 혹은 밖에서의 인간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4) 초자연의 영역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의 자연관을 살펴보고, 성경적 자연관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런 시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바른 태도가 분명해졌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다.

2. 무질서한 자연

Plato의 세계는 자연의 세계와 ideal Form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었고, 이 중 자연은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세계로 생각되어졌다. 자연 속에 보이는 일부 질서는 본래 자연에 속한 것이 아니고, Form의 세계에 의해 부과된 것이다. 자연 자체로는 최소한 무가치하고 종종 적대적이고 악하며,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인간의 육체는 자연에 속한 반면, 영혼은 Form의 세계에 속한다. 이런 세계관에서 자연은 인간의 관심을 들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낸다. Form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지성의 소유자로서 인간은 자연에 질서를 부여하는 책임이 있다는 측면이 언급되긴 했지만, Plato의 자연관의 영향은 중세에서 주로 자연 및 육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열등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계적 질서가 있는 자연

1) Epicurianism

Epicureanism의 자연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이 원자와 원자들의 조합의 결과이다. 원자들과 그들의 집합체인 큰 물체의 운동은 규칙적이긴 하지만, 아무런 외적 혹은 내적인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계관에서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삶에도 아무런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 행동의 목적은 단지 안락하

게 사는 것뿐이다.

2) 근대과학이 만든 자연관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세계로 인식하고 그 피조세계를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것이 근대과학을 탄생시킨 중요 동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Newton 역학이 완성됨으로써 얻어진 세계는 운동과 힘, 그리고 수학적 법칙으로 표현되는 기계적인 세계였다. 색이나 냄새 같은 감각적 성질은 부차적인 성질로 여겨졌고, 정확히 측정되어 숫자로 환원될 수 있는 것들이 실체로 여겨졌다. 물리 법칙으로 묘사되는 세계는 아주 단순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없어졌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더이상 그 운행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clockmaker 가 되어버렸다.

Descartes 는 측정으로부터 원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성(mind)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성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체는 다른 자연과 마찬가지로 기계로 이해되었고, 이성이 없는 동물들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를 물질과 운동으로 이해하려는 방식은 이성 자체에도 적용되어, 인간을 기술하는데 이성을 동원하지 않고 그 행동만으로 묘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이 세계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Bacon 은 인간의 실질적인 생활을 개선하는데 쓰일 수 있는, 즉 자연에 대해 힘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추구했고, 그런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자세히 관찰하는 귀납적인 방법을 택했다. 이것의 어두운 면은 자연은 인간이 유익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Bacon 과 마찬가지로 신대륙에 정착하고 서부를 개척해 나가야 했던 청교도들도, 자연을 타락 이후 약해져서 다시 질서 있는 상태로 회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이런 태도는 점차 변질되어 자연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만 여겨지고 자연 그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는 태도로 나타나, 자연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결과를 낳았다.

4 유기적 (?) 질서가 있는 자연

1) Aristotle

Aristotle 의 세계는 matter 와 form 으로 이루어진 substance 로 이루어져 있었다. 자연은 form 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고, 서로 연관된 복잡한 내적 질서를 가진다. 모든 substance 는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은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위계 질서의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자연의 일부이다. Aristotle 에게 있어서의 좋은 사람은 이런 세계 질서 속에서의 자기 기능을 잘 해야 하는데, 인간의 독특성이 합리성이라면,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분류하는 것이 인간의 할 일이다. 자연은 그 자체의 목적을 갖지만, 이 목적들은 인간을 향하기 때문에 인간은 나머지 자연을 인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Stoicism

우주는 질서를 부여하는 신적인 원리인 logos 에 의해 다듬어진 질서 있는 동물과 같다. 이 거대한 유기체의 각 부분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과 신들은 이 우주의 일부지만, 가장 완전한 존재로서 독특한 존재이며, 다른 세계는 이 이성적 존재들을 위해 존재한다. 좋은 사람은 이 우주적 질서에 순응하여 살아야 하고, 자연을 돌보고 질서를 유지하며 아름답게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

3) 중세의 자연

Latin christianity 에서의 우주는 인격화된 nature 와 성경적인 creation 이 혼합된 형태였다. 우주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잘 정돈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가지고 있다. 유기체와 같은 우주의 이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우주관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을 탐구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동기 부여를 받지 않았다. 비록 노동자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많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긴 했지만, 기술과 연역적인 과학은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Celtic christianity 나 St. Francis 등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좋음과 그

가운데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자연 속에 임재하는 신성을 체험하고 즐기기는 했지만, 그 신성이 자연 자체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신비주의나 범신론과는 구분이 된다.

4. 신격화된 자연

유기체로 파악된 자연이 신성을 부여받는 경계는 분명치 않다. 위에서 언급한 Stoicism의 자연관은 Aristotle의 자연관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훨씬 종교적이다. 21 세기의 사상으로 부상하는 생태주의의 일부는 종교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데, 그 deep ecology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Deep ecology는 환경문제를 과학적 수준에서 다루는 shallow ecology와는 달리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이는 인간과 자연, 하나님과 세계의 구분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라는 일원론의 형태를 띤다. 이 deep ecology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학적 이론들이 있다. 하나는 지구가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자기 제어의 기능을 갖는다는 Gaia 가설이다. 또 다른 것은 우주에 절대적으로 우월한 점은 없다는 상대성 이론과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 본질적인 불확정성이 있으며, 우주의 멀리 떨어진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양자물리이다. 또한 deep ecology는 힌두교, 도교, 불교 등의 동양 종교와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5. 성경적인 자연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자연 그 자체는 신성시되거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연을 인격화하거나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것도 성경의 피조세계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조된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성경의 기사는 자연이 무질서하다거나 악하다는 생각과는 다르다. 또한 자연을 인간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자원으로만 여기고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라도 거리가 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가운데 임

44 환경문제에 관련한 자연관의 유형들

재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므로, 자연에는 기계적인 질서만 있다는 자연관과도 다르다.

자연에 질서와 가치를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이것은 자연이 본래의 내재적인 질서를 가진다는 것과 달라 보이고, 자연에 질서를 부여하는 초자연의 영역을 비인격적인 Form, 원리 등으로 생각하는 것과도 다르다. 인간은 분명 피조물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위치를 연속한 자연 체계의 꼭대기쯤으로 파악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부여받았다. "땅을 정복하라 (창 1:28)" 라는 말씀이 다소 과격하게 들리기는 해도, 성경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인간의 관리는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유익을 위해 자연을 사용하는 행태와는 분명한 거리가 있다. 또한 성경이 인간의 구원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청지기 임무는 여전히 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통해 온 세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므로, 자연을 인간 구원 드라마의 배경쯤으로 여기는 태도와도 거리가 있다. 인간은 자연을 창조질서대로 보존하는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6. 글꼬리

창조의 책임 자연을 탐구하고자 출발했던 근대과학이 기계적인 세계관을 낳았다는 것은 역설적인 일이다. 타락한 자연을 창조질서로 회복시키기 위해 힘을 가진 지식을 추구한 결과가 인간의 유익을 위한 자연의 대량파괴로 이어졌다는 것도 역설적이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균형 잡힌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말해 준다.

현재의 환경 위기에 이르게 한 종교적인 배경으로 기독교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록 환경 위기 뒤의 세계관이 출발은 성경적이었지만 도중에 변질되어 성경적인 세계관이 멀어졌다고 변명하더라도, 역사 속의 기독교가 일정한 책임 (최소한 방만한 책임) 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

21 세기의 사상으로 생태주의를 많이 얘기한다. 생태주의의 일부는 종교적인 배경으로 동양 종교를 찾는데, 그 원인의 일부가 역사적인 기독교에 대한 실망임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립하고 청지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그 뒤의 영적 전쟁에도 대비하는 길이 될 것이다.